

특별기고

남구명예구민 된
영국군 참전용사
제임스 그룬디

나는 1931년 6월 22일 영국 맨체스터주 에클스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다. 집은 아주 가난했고, 삶의 시작 또한 순탄치 못했다. 4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36세의 나이로 돌아가셔서 어머니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후 조부모의 손에서 자랐고 고아원에서 잠시 생활했다. 14살에 농장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이때가 가장 고통스러웠다. 18살이 되어서야 농장을 떠나 고향 에클스로 돌아왔고 곧 있다 군에 입대했다. 군 복무 도중 조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슬픔에 빠진 적도 있었지만, 군 생활에 잘 적응했고 이때 만난 친구들과는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8개월의 의무 복무를 마친 뒤 직업군인 신청을 했다. 이 무렵 어떤 나라가 침공을 당해 전쟁이었는데, 그 나라로 파병을 가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다.

1951년 1월 말, 1,000명의 동료 군인들과 함께 군함에 몸을 실었다. 대부분 한 번도 배를 타 본 적이 없어 다들 뱃멀미로 고생을 해야 했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돌보며 힘든 항해를 견뎌낼 수 있었다.

긴 항해 끝에 배는 항구에 닿았고, 배에서 내려 짧지만 편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국으로 가는 여정 동안 여러 군인들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궁금해 했고 앞으로 자신을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대부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 없었다.

2월 초가 되어서야 우리가 타고 온 군함이 부산

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항구를 내려가 미국의 흑인 밴드의 열광적인 음악이 우리를 반겨주었고 부두에 마련된 환영장에서 커피와 도넛이 제공됐다. 이후, 트럭을 타고 어느 열악한 부대로 이동했는데 그 곳에는 세 개 남짓의 침상과 담배, 커피, 차, 샌드위치 등을 파는 매점이 있었다. 그곳에서 사흘을 보낸 뒤 다른 부대원들은 다시 북쪽으로 이동했지만 나는 그곳에 남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다음날 부대장과의 면담에서 부대장은 내가 영국에서 장례 관련 일을 잠시 했던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 내가 한국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튿날 통신장비와 소총을 든 한국인 병사를 소개 받고 미국, 호주, 뉴질랜드 병사들과 한 팀이 되어 전장으로 나갔다. 전투 지역에 남겨진 전우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이 바로 우리 팀의 임무였다. 우리는 시신이 묻혀있는 곳이 표시된 지도를 들고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뉴질랜드 병사가 운전하는 작은 트럭을 타고 3일간 부산에서 대구 사이의 지역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지역이 너무 넓어서 어디 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 지 막막했다. 그래서 작전을 대구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우리는 언제 북한군과 마주칠지 몰라 경계를 했지만, 다행히 북한군을 그렇게 많이 만나지는 않았다. 처음 이들은 추운 날씨 때문에 땅이 얼어서 시신 수색 작업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날씨가 좀 더 풀리면 다시 찾기로 하고 다른 지역

중 대신 주어진 삼과 곡괭이
전투현장 돌며 동료 주검 수습

90여구 찾아 유엔기념공원 안장

지금도 그때의 트라우마 시달려

한국 수양손녀가 영혼의 치유 도와

으로 이동했다.

지도에는 시신이 남아있는 20군데의 지역이 표시되어 있었다. 눈이 있는 어느 한 지역을 수색할 때였다. 3명의 영국 병사가 묻혀있다는 정보를 토대로, 우리 팀은 5개월 동안 그곳에 남겨져 있던 3구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시신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수첩이나 군번줄 같은 소지품이 있기 마련인데, 이 시신들은 소지품이 서로 뒤섞여 있어서 신원을 알아낼 수 없었다. 수습한 3구의 시신을 부산에 있는 유엔묘지로 옮겨왔지만 누가 누구인지 끝내 이름을 확인할 수 없어 무명용사로 안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봄이 찾아왔고 우리 팀은 처음 방문했다가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던 지역을 다시 수색해 미군과 영국군 시신 2구를 거둘 수 있었다. 시신을 깨끗이 씻은 뒤 유엔묘지에 안장했는데, 이들의 신원은 다행히 파악이 돼 묘비에 이름을 새겨

줄 수 있었다.

날은 점점 풀리면서 더 많은 시신들을 수습할 수 있었다. 여름이 되면서 눈에 거품이 올라오는 곳에는 어김없이 시신이 묻혀 있었다. 시신 대부분은 영국군이었지만 미군이나 극히 소수였지만 북한군인도 있었다. 이런 극단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 팀은 영국 병사들을 비롯하여 북한, 한국, 미국 등 약 90구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한국 복무를 마치고 일본에서 근무한 뒤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다. 고향으로 돌아와 아내 '진'을 만나 결혼했는데 그녀는 2008년 세상을 떠났다.

나는 30여년 전부터 매년 한국을 혼자서 방문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할 때면 한국인 친구 이동수 씨와 함께 DMZ 인근 그의 별장에서 잠시 머문 뒤 부산에 내려와 용호동에 살고 있는 수양 손녀의 집에서 일주일 이상 지낸다.

이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특별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는 전쟁 때 나의 임무와 경험을 떠올려 이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다. 바로 수양 손녀인 브랜다(한국명 박은정)이다. 브랜다를 처음 만난 것은 2006년이었다. 그녀는 당시 유엔기념공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

처음 만났을 때 브랜다는 내가 한국전쟁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브랜다는 전쟁에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나를 설득했다. 전쟁 이후 살아오는 동안 전쟁터



영국군 참전용사 제임스 그룬디 씨가 유엔기념공원 전몰용사추모명비에 새겨진 사촌형 옛킨슨 하사의 이름을 찾아 가리키고 있다.

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경험을 기억해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2010년에는 척추암 투병 중에 불구하고 브랜다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그녀와 남편, 그리고 그 가족들 모두가 내게 친절하다. 부산에 올 때 마다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나도 감사하다. 돌아 쳐보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나는 소년이었지만 때날 때는 남자가 되어 있었다.

사진의 거장이 평생 추구한 빈자의 일상에 깃든 휴머니즘

꼭테육의 바람고개 이야기

사진작가 최민식

최민식(崔敏植, 1928~2012) 선생에 대한 소식어는 다양하다. 국내 1세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카메라 렌즈에 굴곡의 시대를 그린 목격자. 혹독한 서민들의 삶을 사진으로 남긴 휴머니스트.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선생은 분명 '가난한 사람들'을 찍은 사람으로 남길 바랐을 것이다.

선생은 독학으로 사진을 연구했다. 알려진 바로는 1957년부터 시작된 선생의 사진 외길 인생은 오직 인간이 소재였고 피사체였다. 일평생 사진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모름지기 일평생을 하나의 주제에 매달리기는 쉽지 않다. 밖으로부터의 온갖 유혹과 굴곡과 지탄과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야 가능한 일이다. 어렵고 힘든 그 길을 꿋꿋하게 걸으면서 세상에 발자취를 남긴 이를 가리켜 '거장'이라고 한다. 거장은 타고나지 않는다. 욕을 먹고 돌을 다듬듯 자신이 하는 일을 갈고 닦아야 인정받을 수 있는 이로운 이다. 때문에 누구에게든 존경을 받는다. 선생의 카메라 앵글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나 호기심을 그린 적 없다. 선생은 그 부분을 이렇게 말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거장의 궤적이 송고하게 느껴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선생이 남긴 '인간 즉 휴먼(HUMAN)'은 현대사와 궤적을 같이 해왔다. 그 궤적 한가운데에는 온전히 낮은 데서 살아가는 서민에 대한 기록이 담겨있다. 그 기록을 관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통찰과 분노와 고발도 함께 하고 있다. 이를 좀 더 확장해 보면 선생이 남긴 사진은 이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오늘 이 시간에 대한 현시이기도 하다. 평생 '인간'을 응시해 온 선생이 1968년부터 사진집 <인간> 1집을 내기 시작해 지금까지 14집을 펴냈다고 한다. 대단한 집념이다. 아니 집

집을 본 것이 선생의 인생을 사진 외길로 이끌었다고 했다. 선생이 오직 '인간'이라는 주제에 천착해 사진을 찍어온 일평생 동안 한때는 가난에 굴복하여 세상을 등질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 가족들의 고통이야 오죽했을까. 필자도 장르는 다르지만 충분히 공감한다. 선생의 그 같은 사진 외길 인생은 그동안 국내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소개돼 왔다. 부산남구신문에서도 선생이 직접 촬영한 사진과 에세이를 몇 번에 걸쳐 연재했다.

선생의 카메라는 서민들의 처절한 몸부림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것은 아니었다. 멈춰있는 흑백 사진 속에는 아름다운 미학도 배어 있고, 일안지리에 미소를 엿게 하는 유머도 있었다. 그래서 선생의 삶과 궤적을 압축해 보면, 어렵고 힘든 서민들의 삶은 우리 자신인 동시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공통분모를 느끼게 된다. 선생도 늘 그런 말을 했다. 자신은 가난을 찍는 사진작가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찍는 사진작가라고. 바로 우리의 자화상을 찍어왔던 것이다. 사진 외길을 갈고 닦아야 인정받을 수 있는 이로운 이다. 때문에 누구에게든 존경을 받는다. 선생의 카메라 앵글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나 호기심을 그린 적 없다. 선생은 그 부분을 이렇게 말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거장의 궤적이 송고하게 느껴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선생이 남긴 '인간 즉 휴먼(HUMAN)'은 현대사와 궤적을 같이 해왔다. 그 궤적 한가운데에는 온전히 낮은 데서 살아가는 서민에 대한 기록이 담겨있다. 그 기록을 관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통찰과 분노와 고발도 함께 하고 있다. 이를 좀 더 확장해 보면 선생이 남긴 사진은 이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오늘 이 시간에 대한 현시이기도 하다. 평생 '인간'을 응시해 온 선생이 1968년부터 사진집 <인간> 1집을 내기 시작해 지금까지 14집을 펴냈다고 한다. 대단한 집념이다. 아니 집

집을 본 것이 선생의 인생을 사진 외길로 이끌었다고 했다. 선생이 오직 '인간'이라는 주제에 천착해 사진을 찍어온 일평생 동안 한때는 가난에 굴복하여 세상을 등질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 가족들의 고통이야 오죽했을까. 필자도 장르는 다르지만 충분히 공감한다. 선생의 그 같은 사진 외길 인생은 그동안 국내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소개돼 왔다. 부산남구신문에서도 선생이 직접 촬영한 사진과 에세이를 몇 번에 걸쳐 연재했다.

선생은 독학으로 사진을 연구했다. 알려진 바로는 1957년부터 시작된 선생의 사진 외길 인생은 오직 인간이 소재였고 피사체였다. 일평생 사진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모름지기 일평생을 하나의 주제에 매달리기는 쉽지 않다. 밖으로부터의 온갖 유혹과 굴곡과 지탄과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야 가능한 일이다. 어렵고 힘든 그 길을 꿋꿋하게 걸으면서 세상에 발자취를 남긴 이를 가리켜 '거장'이라고 한다. 거장은 타고나지 않는다. 욕을 먹고 돌을 다듬듯 자신이 하는 일을 갈고 닦아야 인정받을 수 있는 이로운 이다. 때문에 누구에게든 존경을 받는다. 선생의 카메라 앵글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나 호기심을 그린 적 없다. 선생은 그 부분을 이렇게 말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거장의 궤적이 송고하게 느껴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선생이 남긴 '인간 즉 휴먼(HUMAN)'은 현대사와 궤적을 같이 해왔다. 그 궤적 한가운데에는 온전히 낮은 데서 살아가는 서민에 대한 기록이 담겨있다. 그 기록을 관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통찰과 분노와 고발도 함께 하고 있다. 이를 좀 더 확장해 보면 선생이 남긴 사진은 이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오늘 이 시간에 대한 현시이기도 하다. 평생 '인간'을 응시해 온 선생이 1968년부터 사진집 <인간> 1집을 내기 시작해 지금까지 14집을 펴냈다고 한다. 대단한 집념이다. 아니 집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7, 4078, 1225honey@korea.kr

공동묘지

윤현수

이 세상 노크함은
자연의 품은 사랑

제각각 소명대로
저 하늘 오르는데

천만년
잘 살겠더니
재산중에 잘리네

사람들 이기심이
편함에 굴복하여

자연의 존엄함에
도전장 들이미니

오호라
금수강산이
무너지네 묻히네.

* 장자산에서 재산중에 걸린 소나무들이 베어져 공동묘지를 이룬 모습을 보고 쓴 시

2019년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대상자 모집

남구보건소에서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2019년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헬스케어(mobile healthcare)'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환자 및 의료진이 시간과 공간, 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주고 받는 의료 서비스를 말합니다.

- **등록대상** : 부산 남구 거주자(직장 주소 포함) 중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을 보유한 자
 -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관련 질환 약물복용자 제외
- **신청기간** : 2019. 3. 11.(월)부터 선착순 150명
 - (최초 건강검진 및 의사면담 후 질환자로 판정 시 탈락할 수도 있음)
- **참여기간** : 서비스시작일로부터 6개월간
- **참여혜택** : 모바일 앱을 통한 1:1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활동량계 및 모바일 앱 제공 * 스마트폰(Android 4.4 이상, IOS 10.0 이상) 소지 필수
 - 3회 무료 건강검진 제공 (최초/중간/최종) → 미검진 시 서비스 중도탈락 및 활동량계 회수
 - 주 1회 정기적 건강정보 제공, 1:1 맞춤형 상담 등
- **문의전화** : 남구보건소 건강체험실 ☎607-6455, 3364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실 신청자 모집

남구보건소에서는 고혈압, 당뇨병의 올바른 질환관리를 위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실』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대상** : 고혈압, 당뇨 질환자 및 고위험군, 예방·관리에 관심 있는 관내 주민
- **장소** : 보건소 3층 보건교육장
- **기간** : 매주 목요일 14:00~15:00(총 3회)
 - ▷고혈압 기초교실』4월4일~4월18일
 - ▷당뇨병 기초교실』5월2일~5월16일
- **내용**
 - ▷고혈압·당뇨병 전반적인 이해와 관리방법
 -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위한 식이요법 및 운동교육
- **접수** : 보건소 1층 원스톱 상담실 ☎607-6418

광견병 예방접종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기간 : 4.15. ~4.25. (11일간)
 ○장소 : 각 동 주민센터
 ○접종비 : 3,000원

(마리당, 소유자 부담)
 -단, 동물등록된 개의 경우만 접종 가능(동물등록증 지참 必)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주는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후 광견병 예방접종 시 동물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함
 ○문의 : 남구 일자리경제과 ☎607-4485

구분	일시	구분	일시
대연1동	4.15.(월) 10:00~11:00	문현1동	4.19.(금) 11:00~12:00
대연3동	4.15.(월) 13:00~14:00	웅호4동	4.19.(금) 15:00~16:00
대연4동	4.16.(화) 10:00~11:00	문현4동	4.22.(월) 11:00~12:00
감만1동	4.16.(화) 13:00~14:00	웅당동	4.22.(월) 15:00~16:00
문현2동	4.16.(화) 15:00~16:00	우암동	4.23.(화) 11:00~12:00
웅호1동	4.17.(수) 11:00~12:00	대연5동	4.23.(화) 15:00~16:00
감만2동	4.17.(수) 13:00~14:00	옛우암1	4.24.(수) 11:00~12:00
웅호2동	4.18.(목) 10:00~11:00	대연6동	4.24.(수) 15:00~16:00
문현3동	4.18.(목) 15:00~16:00	웅호3동	4.25.(목) 11:00~12:00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2001. 1. 1. ~2008. 12. 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신청기간 : 2019. 1월~2019. 12. 15. (신청일부터 지원)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을 주요양육하는 사람(부모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
- 지원금액 : 1인당 월10,500원(연 최대 126,000원) 바우처 지원
- 구입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용품 구매
- 신청문의 : 청소년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지원대상 여부 등 확인)

산타라가 물 따라

산행을 떠나요



<2019. 4.>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장소	연락처
대연동	대삼산악회	4/14(일)	창녕 남지 마분산	010-8565-8359
	약천산악회	4/17(수)	남원 계곡둘레길	010-4655-4370
	백호산악회	4/10(수)	통영 한산도	010-3837-6206
	산사량산악회	4/22(일)	소매물도	010-2024-2892
	남구자유산악회	4/7(일)	통영 연화도, 우도	010-5576-8142
	대송산악회	4/14(일)	청송 주왕산	010-2559-2641
용호동	용신산악회	4/14(일)	검주 삼릉원	010-4657-7051
	청산산악회	5/3(금)~5(일)	홍도, 흑산도	010-8008-2087
	해월산악회	4/21(일)	장흥 제암산	010-3560-3409
	산이출아산악회	4/28(일)	사천 간산	010-9329-3560
	환경산악회	4/7(일)	통영 사랑도	010-3575-3448
	여남산악회	4/14(일)	거제 대곡산	010-3855-6569
웅당동	용호산악회	4/28(일)	사천 간산	010-9497-4575
	여명산악회	4/7(일)	남해 호국산	010-2582-4254
	청심산악회	4/28(일)	여수 영취산	010-2736-7553
	21세기산악회	4/14(일)	여수 영취산	010-7563-1943
	문화산악회	4/28(일)	통영 사랑도	010-3856-7850
	용마산악회	4/14(일)	대구 비슬산	010-2692-1170
감만동	오슬길산악회	4/20(토)~21(일)	남도 맛 투어	010-8287-1192
	문현2동산악회	4/14(일)	여수 영취산	010-9320-4121
	문사산악회	4/14(일)	합천 황매산	010-8466-8662
	원뿌리산악회	4/21(일)	김천 인현왕후길	010-4564-7769
	산누리산악회	4/7(일)	해파랑길 13코스	010-4035-3432

* 산행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 일자리 알리판

<2019. 3. 22.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대연지역아동센터	대연동	지역아동센터장	1명	19. 3. 22. ~채용시	월급 1,750,000원	051-621-2904
㈜경양엔지니어링	감만동	기계캐드원	1명	2019. 3. 22. ~채용시	연봉 25,000,000원 + 30,000,000원	051-418-6628
에텐어린이집	감만동	보육교사(대체교사)	1명	2019. 3. 22. ~채용시	시급 9,000원	051-632-5963
㈜지엠네트웍스	대연동	인사사무원	1명	2019. 3. 22. ~채용시	월급 2,050,000원	051-806-8051
진보퍼니처	감만동	가구제조원	1명	2019. 3. 22. ~채용시	시급 8,350원 + 월급	051-635-9638
㈜칼라네트웍시스템	문현동	컴퓨터 설치 수리원	1명	2019. 3. 22. ~채용시	월급 1,800,000원	051-803-3751
㈜지엠네트웍스	대연동	앱 어플 개발	1명	2019. 3. 22. ~채용시	월급 2,050,000원	051-806-8251
디월방문산후조리	대연동	산모신생아 건강사	9명	2019. 3. 22. ~채용시	월급 1,750,000원	051-626-2002
㈜아이에스오름크	웅당동	컨테이너 정비 세척원	1명	2019. 3. 22. ~채용시	월급 1,800,000원 (상여금 300%)	051-611-6998
㈜유밀미디어	문현동	방송장비 설치 수리원	1명	2019. 3. 22. ~채용시	월급 2,000,000원 (상여금 300%)	051-802-9558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worknet)와 연계
* 남구 취업정보센터 ☎607-4347~8 Fax. 607-4349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77, 4078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m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밀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